

2020년 11월 14일 시행

# 제35차 의무소방원 선발 필기시험

응시번호	
성명	

책형
<b>B</b>

## 【 시험 과목 】

제 1 과 목	제 2 과 목	제 3 과 목
국 어	국 사	일반상식

###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지 표지의 ‘시험지 책형’을 확인하고,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의 책형란에 ‘시험지 책형’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의 ‘과목 순서’, ‘페이지 수량’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 이 시험지는 총 15 페이지입니다.

4.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19

# 【 국 어 】

1. 다음 개요 중 ㉠과 관련된 표어를 <보기>의 조건에 맞게 완성하고자 할 때, 옳은 것은?

제목: 소방 차량 운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I. 서론  
- 소방 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의 어려움 및 실태

II. 본론  
1. 소방 차량 운행 어려움의 원인  
1) 개인적 측면  
- ㉠소방 차량에 대한 양보 관련 시민 의식 미비  
- 소방 차량 우선 교통 신호 체계 미비  
2) 사회·제도적 측면  
- 소방 차량 양보 의무 관련 제도 미흡

2. 소방 차량 운행 어려움 해소 방안  
1) 소방 차량 길 터주기 주민 훈련, 표어 공모전 등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2) 소방 차량 양보 의무 불이행 관련 벌칙 강화  
3)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III. 결론  
- 실천 촉구

— <보 기> —

- 개요에 맞는 내용을 담아낼 것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할 것
- 대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할 것

- ㉠ 나에겐 바쁜 길, 남에겐 생명 길
- ㉡ 예방하면 화재 제로, 방심하면 한줌 재로
- ㉢ 길 터주는 멋진 행동, 우리 모두 소방대원
- ㉣ 먼저 가요 소방 차량, 먼저 해요 양보 실천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蠢]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犬] 돼지[豕] 양[羊] 뿔레[鹿] 매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支節)과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봉(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했다.  
- 이규보, [솔견설(蝸犬說)]口

2.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 ㉡ 추상적인 대상의 나열을 통해 사물 간의 변별적인 자질들을 부각하고 있다.
- ㉢ 인물들이 서로의 의견에 반박하는 대화 구조를 통해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
- ㉣ 유사성을 근거로 한 유추의 방식을 통해 인간이 지녀야 할 깨달음을 도출해내고 있다.

# 【 국 어 】

**3. ‘어느 나그네’와 ‘나’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 ① ‘어느 나그네’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나’는 비판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어느 나그네’는 타인의 잘못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나’는 자신의 잘못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어느 나그네’는 사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는 사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느 나그네’는 외양에 따라 본질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나, ‘나’는 내적인 본질을 중심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있다.

**4. 다음 시의 ㉠~㉢ 중 <보기>의 ‘경계적 시 공간’과 관련된 시어를 모두 골라 옳게 묶은 것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김소월, □춘혼□

—<보 기>—

일반적으로 시적 배경은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이 시의 화자는 밝음(삶)과 어둠(죽음)의 경계, 땅(이승)과 하늘(저승)의 경계적 시 공간에서 임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시적 배경은 화자가 처해 있는 심리적 위치를 환기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 소멸과 고독을 상징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5.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바탕으로 제시된 단어를 옳게 이해한 것은?**

—<보 기>—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단어		이해한 내용
①	무덤		[제19항]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무덤’으로 적는군.
②	마개	□	[제19항] (붙임)에 따라 어간 ‘막-’에 접사 ‘-애’가 붙은 말을 ‘마개’로 적는군.
③	날날이		[제20항]에 따른 것이고, 이는 ‘이파리’에도 적용되는군.
④	무르팍		[제20항] (붙임)에 따른 것이고, 이는 ‘주검’에도 적용되는군.

# 【 국 어 】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정보의 시조

(나)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독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 제면 여다져 불가 노라  
-작자 미상의 시조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②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이중적 속성을 바탕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었다.

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 ② 현실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③ 현실의 고통을 인간에 의지하여 잊고자 한다.
- ④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8.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겠다’라는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의지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화자인 ‘슬픔’이 청자인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지나온 삶에 대한 ‘나’의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기쁨’과 ‘슬픔’이 지닌 일상적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9. 이 시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현실에 좌절하고 굴복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는군.
- ③ 부정적 대상을 비판하며 이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군.
- ④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 국 어 】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세기 조선에서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하였다.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하를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은 산수화이다. 무엇보다 진경(眞景)은 대상의 겉모습만을 묘사하지 않고,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그림임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 대표적 작가인 겸재 정선은 중국의 화법인 남종문인화 기법을 바탕으로 우리 산하를 주체적으로 그려내었다. 성리학에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겸재는 재구성과 변형, 즉 과감한 생략과 과장으로 학문적 이상과 우리의 산하에 대한 감흥을 표현했다. 또한 겸재는 음과 양의 조화를 화폭에 담고자 했다. <구룡폭도>에서 물줄기가 내 눈 앞에서 쏟아지는 듯한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 겸재는 앞, 위, 아래에서 본 것을 모두 한 그림에 담아냈다. 폭포수를 강조하기 위해 물줄기를 길고 곧게 내려 굽고 위에서 본 물웅덩이를 과장되고 둥글게 변형하였다. 그림을 보는 이들이 폭포수의 감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재하는 폭포 너머의 봉우리를 과감히 생략했다. 절벽은 서릿발 같은 필선을 통해 강한 양의 기운을 표현한 반면 절벽의 나무는 먹의 번짐을 바탕으로 한 묵법을 통해 음의 기운을 그려냈다.

진경산수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는 단원 김홍도이다. 국가의 공식 행사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화원이었던 단원은 계산된 구도로 전대에 비해 더욱 치밀하고 박진감 넘치는 화풍을 보였다. 그는 초상화에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정신까지 담아내려고 한 것처럼 대상의 완벽한 재현으로 자연에서 느낀 감흥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특히 중국을 거쳐 들어온 서양화법 중 원근법, 투시법 등을 수용해 보다 사실적인 경치를 그려내었다.

정조의 명을 ㉠ 받아 단원이 그린 <구룡연>은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직접 찾아가 그 모습을 담은 것이다. 흘러내리는 물줄기, 폭포 너머로 보이는 봉우리, 폭포 앞의 구름다리까지 사진을 찍은 듯이 생략 없이 그렸다. 과장과 꾸밈이 없어 보이는 그대로의 각도로 그린 것이다. 그리고 절벽 바위 하나하나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선의 굵기와 농담에 변화를 주어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10.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겸재는 중국의 화법을 바탕으로 자연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단원은 실재하는 경치의 감흥을 사실적인 묘사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③ 겸재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자신의 학문적 이상을 화폭에 담고자 하였다.
- ④ 단원은 서양 화법의 영향 없이 우리 고유의 화법으로 그리고자 하였다.

11.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런 몸매에는 어떤 옷도 잘 받는다.
- ② 그는 날아오는 공을 한 손으로 받았다.
- ③ 그녀는 가름한 얼굴이라 사진이 잘 받는다.
- ④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12. 한자어와 나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혹(不惑) - 마흔 살
- ② 이순(耳順) - 예순 살
- ③ 희수(喜壽) - 일흔 살
- ④ 백수(白壽) - 아흔 아홉 살

## 【 국 어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딸기 철엔 수원(水原)에도 가고, 포도 철엔 안양(安養)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大川)에도 가고, 가을엔 경주(慶州)에도 가 보고, 밤엔 함께 영화 구경, 쇼 구경하러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슨 병환이셨던가요?”

하고 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의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안이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떨것느냐는 눈짓을 보냈다.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大邱)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번도 친정과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자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단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다꾸앙과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애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 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중략>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갯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그것이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 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13. ㉠의 이유로 옳은 것은?

- ① 많은 돈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 ② 아내의 시신을 팔았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돈을 오래 지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③ ‘나’와 ‘안’에게 호의를 베풀면 이들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④ 평소 돈이 생기면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아내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 【 국 어 】

14.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 소통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군.
- ② ‘안’, ‘사내’ 등으로 실명을 숨긴 인물들은 익명성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개미’는 자신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나’의 양심의 가책을 의미하겠군.
- ④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다는 ‘안’을 통해 생명보다 개인의 편안함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15.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적용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붙임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붙임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붙임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다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붙임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수(數)도 (붙임4)에 준하여 적는다.

- ① (붙임1)을 참고하면 ‘선률(旋律)’로 적어야겠군.
- ② (붙임1)을 참고하면 ‘사례(謝禮)’로 적어야겠군.
- ③ (붙임4)를 참고하면 ‘연이율(年利率)’로 적어야겠군.
- ④ (붙임4)를 참고하면 ‘역이용(逆利用)’으로 적어야겠군.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의 의미는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같은 의미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우리 민족은 한자 문화의 영향권 안에 살면서 한자를 공부할 때에 그 ‘새김’과 ‘음’을 결합하던 습관을 지니고 있다. 즉 ‘天’을 그냥 ‘하늘’이라고 읽거나 ‘천’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이라고 읽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어와 한자를 이중으로 말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상 생활에서도 스스로 불확실하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의 이해가 불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는 습성을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는 ㉠ 의미의 중복 현상이라고 하는데, 언어 문자 생활을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이다.

접미사 ‘-지다’는 앞에 놓이는 동사의 통사적 기능을 바꾸어준다. 명사를 상태 동사로 만들고 상태 동사는 자동사로 만들며 자동사는 피동사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타동사는 피동사나 자동사로 바꾸어준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함부로 붙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다. 특히 서양 문장의 피동 표현을 흉내 내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는 원래 영어나 그 밖의 언어에서처럼 피동문이 많이 쓰이지 않았고, 또 쓰더라도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피동문이 더 많았다. 그런데 ㉡ 요즘의 글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피동문이 많이 나타날 뿐 아니라, 피동문이 부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16. ㉠과 같은 ‘의미의 중복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 시험을 치른다.
- ② 이 자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널리 보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 ③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찾아 나섰다.
- ④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세이다.

17. ㉡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눈에 덮여진 산봉우리가 나타났다.
- ② 열심히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 ③ 이러한 현상은 지구 환경의 변화로 보여진다.
- ④ 산더미같이 쌓여진 쓰레기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 【 국 어 】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책은 먼저 많이 읽는 것으로 첫 태도를 삼는다. 많이 읽어야 공부의 바탕이 넓어질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정밀하게 읽는 것이 독서의 가장 바른 방법이다. 많이 읽는다 하여, 아무런 책이나 마구 읽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남독이라 한다. 남독은 머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피로와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다. 책이라고 하여서 다 유익하고 훌륭한 것은 아니요, 부질없고 방해되는 책도 이 세상에는 적지 않다. 그러므로 독서를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좋은 책을 골라서 읽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 요령 있게 씩어지고, 감동 깊게 씩어진 것, 풍부한 내용, 고귀한 사상을 가진 책을 가리켜 좋은 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책을 읽기 전에 어떻게 아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는 말은 지극히 간단하다. 예로부터 이름 있는 책, 훌륭한 학자들이 추천하여 장려하는 책, 학문의 바탕이 되는 책, 인생 체험에 많은 가르침을 주는 책, 이런 책들이 양서다. 공부하는 도중의 독서는 흥미만을 표준 삼지 말라. 유행하는 책만을 탐내지 말라. 제 실력 제 정도에 넘치는 책을 함부로 읽지 말라. 멋모르고 주워 읽은 책은 그 책의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뒷날 다시 읽으려 하면, 한 번 읽은 것이라 하여 다시 펴기가 싫어지기 쉬운 것이다. 어린 날의 독서 태도는 먼저 이 세 가지를 명심하여야 한다.

책을 읽거든, 중요한 대목을 뽑아서 정리하여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뒷날 그 책을 참고할 일이 있을 때 수고를 덜어 줄 것이다. 누구의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밝혀 두면 더욱 좋다. 책을 읽은 뒤의 느낌을 요약하여서 적어 두도록 하여라. 책 속에 들어 있는 사상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책을 읽는 동안에 모르는 말이 나오거든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전을 찾는 습관을 기르라. 책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고 체험하는 노력을 가지는 것이 또한 좋다. 그리고 책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그 책을 애써 쓴 사람에 대한 예의요, 공부에 대한 엄숙한 마음을 길러 준다. 책장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곧 붙일 것이요, 책표지를 종이로 싸서 두는 것도 이러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18.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 ①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통념을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주로 감성에 호소하여 글쓴이 주장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부각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19. 이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있으므로 다독과 남독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읽고 싶은 책만을 읽지 말고 고전(古典)과 추천도서들을 골라서 읽어야 한다.
- ③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아 이해가 어렵더라도 많이 읽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책은 정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며 읽는 도중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20. 근원 설화와 서사 문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방이 설화 → 수궁가 → 별주부전 → 토(兔)의 간
- ② 도미 설화 → 춘향가 → 춘향전 → 옥중화(獄中花)
- ③ 구토 설화 → 흥보가 → 흥부전 → 강상련(江上蓮)
- ④ 연권녀 설화 → 심청가 → 심청전 → 연(燕)의 각(脚)



# 【 국 사 】

1. 다음 법을 만든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① 한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 ② 덩이쇠를 낙랑과 왜 등에 수출하였다.
- ③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 ④ 제가 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2.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읍에 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한다. 거기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도망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않는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민며느리제의 풍습이 있었다.
- ②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시행하였다.
- ③ 신지, 읍차 등의 군장이 존재하였다.
- ④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을 생산하였다.

3. 다음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 왕 2년 여름 6월, 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전을 전하였다.  
· 왕이 사신을 보내 사례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태학을 세우고 자제를 교육시켰다.  
- [삼국사기]

- ①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② 5소경을 마련하였다.
- ③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 ④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4.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왕 원년 8월에 소관 김흥돌, 파진찬 흥원, 대아찬 진공 등이 모반을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 왕 2년 6월에 국학을 세웠는데, 경 1명을 두고, 공장 부감 1명과 채전감 1명을 두었다.

- ①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충주고구려비를 건립하였다.
- ③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④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5. 다음 중앙 정치 기구를 두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화랑도를 조직하였다.
- ②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 ③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 ④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6.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옳은 것은?

윤관이 “제가 전날에 패한 원인은 적들이 모두 말을 탔고, 우리는 보병으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자, 이때 비로소 ( 가 )을/를 만들기로 하여 문무의 산관, 서리부터 …(중략)… 말을 기르는 사람들은 모두 신기군에, 말이 없는 자는 신보군에 배속하였다. …(중략)… 또 승려를 선발하여 향마군을 편성하였다.  
- [고려사]

- ① 9서당
- ② 별무반
- ③ 별기군
- ④ 삼별초

# 【 국 사 】

7. (가)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삼국 이전에는 과거(科擧)의 법이 없었고, 처음에 고려 태조가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인재를 뽑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 가 ) 이/가 쌓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하니, 이때로부터 학문을 중시하는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 [고려사]

- ① 훈요 10조를 남겼다.
- ②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③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 ④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8.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묘청 등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며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묘청은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개'라 정하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1126	1170	1231	1270	1392
	(가)	(나)	(다)	(라)	
	이자겸의 난	무신 정변	몽골의 침략	개경 환도	조선 건국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9.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조선의 언론 기관, 3사>

- 의미 : 홍문관, ( 가 ), 사간원을 합하여 부르는 말
- 기능
  - 홍문관 : 학술, 경연 담당
  - ( 가 ) : 관리의 비리 감찰
  - 사간원 : 국왕의 정치 비판
- 특징 : 언론 활동을 통해 권력의 독점과 부정 방지

- ① 사헌부
- ② 승정원
- ③ 의정부
- ④ 의금부

10.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탕평책을 통해 국왕 주도의 정치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규장각에 신진 인사들을 등용하여 자신의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였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① 만적의 난이 일어났다.
- ② 무오사화가 발생하였다.
- ③ 동의보감이 저술되었다.
- ④ 수원 화성이 건설되었다.

11. 밑줄 친 '이 법'으로 옳은 것은?

다만 교활한 아전은 명목이 간단함을 싫어하고 모리배들은 방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삼남에는 부호가 많은데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법령을 시행할 때에는 마땅히 소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 [효종실록]

- ① 과전법
- ② 균역법
- ③ 대동법
- ④ 영정법

# 【 국 사 】

12.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아, 이곳은 정암 ( 가 ) 선생이 귀양살이를 하던 집이고 또 생을 마친 곳이다. 아, 지난 기묘년은 지금으로부터 149년이나 되는데, 학사, 대부는 그 학문을 사모하고 백성은 그 혜택을 생각하되, 세월이 오를수록 더욱 잊지 못하였다.  
- [송자대전]口

- ①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 ②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 ③ 서원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④ 서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1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국왕이 도원수 강홍립에게 지시하였다. “원정군 가운데 1만은 조선의 정예병만을 선발하여 훈련하였다. 이제 장수와 병사들이 서로 숙달하게 되었노라. 그러니 그대는 명군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오직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였다.

	(가)	(나)	(다)	(라)	
	선조 즉위	임진왜란 발발	광해군 즉위	병자호란 발발	백두산 정계비 건립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14.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건은 몰락 양반의 지휘하에 영세농,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가산에서 봉기한 이들은 한때 청천강 이북을 점령하였으나 정주성에서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① 전봉준이 봉기를 주도하였다.
- ② 전국적인 농민 봉기로 확산되었다.
- ③ 훈구와 사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 ④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되었다.

15.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관 조선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이외에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인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인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인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 ① 통감부 설치를 규정하였다.
- ②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 ③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 ④ 치외 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16.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함께 여자 몸으로 규문 안에 있어 삼종지위에 간섭할 일 오랫동안 없었으나, 나라 위하는 마음과 백성의 도리에 어찌 남녀가 다르리요. 듣자니 국채를 갚으려고 이천만 동포가 석 달간 담배를 아니 피우고, 금전을 모은다 하니 족히 사람을 흥감케 할지요, 앞날에 아름다움 있으리.

- ①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 ②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③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 ④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 【 국 사 】

17.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한인 애국단의 ( 가 )은/는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상하이 사변 승리 및 일왕의 생일 축하 기념식 단상에 폭탄을 던져 많은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하였다. ( 가 )의 의거를 계기로 중국인의 반한 감정이 크게 완화되었고,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 ① 안중근
- ② 윤봉길
- ③ 김상옥
- ④ 장인환

18.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 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중략)…  
금일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달지 말라.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 4.1 독립 선언서 -

- ①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났다.
- ② 치안 유지법으로 탄압을 받았다.
- ③ 집강소를 통해 폐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19.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하나회를 해체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군사 반란 및 5.18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였다.

- ①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였다.
- ②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다.
- ③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④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20.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 합의를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 ①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
- ②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 ③ 신군부 퇴진과 계엄령 철회를 요구하였다.
- ④ 3.15 부정 선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 【 일반상식 】

1.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으로 옳은 것은?

(가) 갑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올해는 과수원 인근에서 양봉업자가 벌을 치는 바람에 수분이 잘 이루어져 사과를 많이 수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갑은 양봉업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나) 을은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을에게 여러 번 항의를 하였다. 하지만 을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

- ① 공공재의 부족
- ② 외부 효과의 발생
- ③ 소득 불평등의 심화
- ④ 독과점 상황의 발생

2. 다음은 신하들이 세종대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신하들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大國)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中華)의 제도를 준행(遵行)하였는데, 이제 글을 같이하고 법도를 같이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작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 세종실록

- ① 문화 공존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다.
- ②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 ③ 타문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낮게 평가하는 태도이다.
- ④ 다른 나라를 문화적으로 정복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태도이다.

3. ㉠, ㉡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다. 견제받지 않는 거대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국가 기관에 상호 견제를 위한 여러 권한을 부여하였다. 예컨대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 ㉠ ) 등을 가진다. 반대로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 ㉡ ) 등을 가진다.

- |  |  |
|--|--|
| ㉠<br>① 법률안 거부권<br>② 법률안 거부권<br>③ 국정 감사권<br>④ 명령 ㉡칙 심사권 | ㉡<br>국정 감사권<br>명령 ㉡칙 심사권<br>탄핵 소추권<br>탄핵 소추권 |
|--|--|

4. 다음 글에서 간디의 행위를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900년대 초 영국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인도에서의 소금 생산을 금지하고 영국에서 소금을 비싼 가격에 수입해서 쓰도록 하는 소금법을 시행했다. 이에 간디는 법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디는 저항의 표시로 각계 각층의 수많은 인도인들과 함께 행진을 시작했고 소금도 생산했다. 이 일로 간디를 비롯하여 6만여 명의 인도인이 투옥되었다. 간디는 감옥에서도 단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영국은 인도에서의 소금 생산을 허용하였고, 이 투쟁은 인도의 독립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 ①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 ②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가 권력에 저항하였다.
- ③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④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기꺼이 감수하였다.

## 【 일반상식 】

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인간은 자연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 ① (가)를 강조한 결과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
- ② (가)는 자연이 인간을 위한 도구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나)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기본적 삶을 위한 자연개발만 허용하고 있다.
- ④ (나)는 자연을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역사는 항상 내가 그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 내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족, 도시, 친족, 민족,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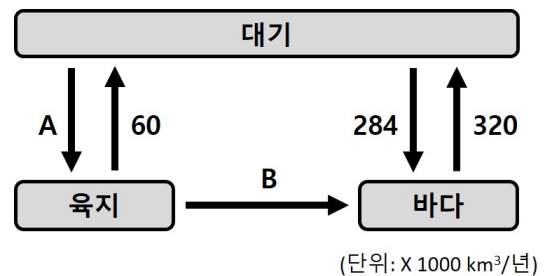
- 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체가 존재한다.
- ② 개인은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 ③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격과 가치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한다.
- ④ 인간은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찾아간다.

7.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평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까지 제거되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① ㉠은 테러나 범죄의 제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 ② ㉡은 종교적 억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실현되기 힘들다.
- ③ ㉠은 ㉡보다 빈곤과 기아의 문제 해결에 더 주목한다.
- ④ ㉠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 실현되기 어렵다.

8. 그림은 지구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연간 물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합으로 옳은 것은? (단,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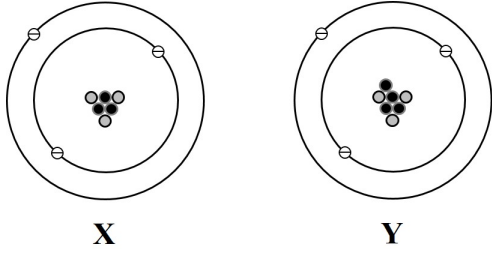
- ① 130
- ② 132
- ③ 134
- ④ 136

9.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다.
- ② 단백질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 ③ 탄수화물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된다.
- ④ 지질은 녹말, 글리코젠 등의 형태로 생명체에 존재한다.

## 【 일반상식 】

10. 그림은 두 가지 중성 원자 X, Y와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입자 ○, ●, ⊖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 ① Y의 원자 번호는 4이다.
- ② ●는 (+)전하를 띤 입자이다.
- ③ Y는 X보다 무거운 원자이다.
- ④ 중성자수로 원자 번호를 정한다.

11. <보기>에서 설명하는 연소가스로 옳은 것은?

— < 보 기 > —

무색 무취의 가스로 불완전연소시 발생한다.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강해 흡입하면 산소결핍 상태가 된다. 인체에 대한 허용 농도는 50 ppm이다.

- ① CO
- ② SO<sub>2</sub>
- ③ HCN
- ④ COCl<sub>2</sub>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해와 같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청장
- ② 행정안전부장관
- ③ 국무총리
- ④ 대통령

13. A급, B급, 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분말 소화약제로 옳은 것은?

- ① NaHCO<sub>3</sub>
- ② KHCO<sub>3</sub>
- ③ KHCO<sub>3</sub> + (NH<sub>2</sub>)<sub>2</sub>CO
- ④ NH<sub>4</sub>H<sub>2</sub>PO<sub>4</sub>

14. 원인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 폭발의 분류 중 기상폭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기폭발
- ② 분진폭발
- ③ 가스폭발
- ④ 분무폭발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화설비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결 송수관설비
- ②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 ③ 피난구조설비 -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유도등
- ④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16.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②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 ③ 전용구역 진입로에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④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

## 【 일반상식 】

17.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 가. 통풍 구조를 양호하게 하여 공기유통을 잘 시킨다.
- 나. 저장실 주위의 온도를 높인다.
- 다. 습도를 높인다.
- 라. 퇴적 수납시 열축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① 가, 나
- ② 가, 라
- ③ 나, 다
- ④ 다, 라

1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로 옳은 것은?

- ① 'A'
- ② 'B'
- ③ 'C'
- ④ 'K'

19.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긴급상황보고 대상 화재 중 인명피해가 사망 5명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이상 발생한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특수화재
- ② 대형화재
- ③ 중요화재
- ④ 긴급화재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 가. 소화기
- 나. 옥내소화전설비
- 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 라. 비상경보설비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 수고하셨습니다.